

1 개요

으드렛당본풀이는 표선면 토산리 여드렛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토산 으드레한집은 나주 금성산의 신이었는데 거처가 사라지자 바둑돌로 변하여 뱃사람을 따라 제주로 들어와 처녀로 변신하여 토산에 당신으로 좌정하였다가 파선하여 죽은 영혼들이 달려들어 겁간하는 바람에 죽자, 그 영혼이 강씨 아기에게 빙의하여 자신을 제향하도록 하였다.

2 내용

토산 으드레한집은 나주 영산 금성산에서 솟아났다. 그 마을에 목사가 도임하면 백일을 채우지 못하고 봉고파직을 당하곤 하였다. 그 마을에 양이목사가 목사가 되기를 자원하였다. 양이목사가 행차하여 금성산을 지날 때 따르는 사람이 산의 영기가 있으니 하마(下馬)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를 무시하고 지나려고 하니 말발이 저려서 지날 수가 없었다. 양이목사는 따르는 사람 하나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커다란 청기와집에서 예쁜 아기씨가 긴 머리를 빗고 있었다. 양이목사가 제 몸을 보이라고 하니 아기씨는 커다란 뱀으로 변신하였다. 양이목사는 포수를 불러 기와집을 불태워버렸다. 한집은 바둑돌로 변신하여 서울 종로 네거리에 떨어졌다.

제주 강씨 형방, 오씨 형방이 미역 진상을 갔다가 바둑돌을 주웠으나 바로 버렸다. 제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바람이 없어 배를 띄울 수 없었다. 점을 치니 강씨 아기의 보자기를 풀어 보면 난데없는 보물이 있으니 선왕에게 바쳐 굿을 하면 바람이 불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하였더니 바람이 일어 배를 띄워 제주 온평리 포구에 도착하였다.

한집은 온평본향당의 멍호부인에게 명함을 드렸더니 이 마을은 자기가 차지한 곳이니 토산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한집은 토산리로 향하는데, 하천리에 이르렀을 때 개로육서또가 예쁜 아기씨가 지나는 것을 보고 팔목을 붙잡았다. 아기씨는 더러운 놈이 만진 팔목을 그냥 둘 수 없다며 장도를 꺼내어 깎고 명주천으로 동여매고, 토산 메뚜기뚝루로 가서 좌정하였다. 한집이 용왕국에 가니 개로육서또를 거부하였다고 크게 나무랐다. 한집이 개로육서또를 불러보았으나 반응이 없었다.

오랜 가뭄으로 큰 흉년이 들자 한집은 느진덕정하님과 함께 빨래 하러 나섰다.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바닷가로부터 도둑이 몰려왔다. 모진 돌풍에 배가 파선하여 선원이 다 죽었

는데, 그 영혼 몇이 한집을 쫓아왔다. 한집은 급히 도망하다가 결국 붙잡혀 겁간을 당하고 죽고 말았다.

한집의 혼정은 가시리 편안 강씨 집안의 외동딸에게 갔다. 강씨아기가 방아를 찧다가 갑자기 신병을 앓기 시작하였다. 조시문에게 점을 보니 마을 예청이 범접한 것이니 큰굿을 해보라고 하였다. 큰굿을 시작하여 초감제가 넘어가니 아기씨가 일어서서 연갑을 열어 옷감으로 굿을 해달라고 하였다. 연갑을 열어보니 옷감에 청만주에미, 흑만주에미가 말라 죽어 있으니, 백지에 뱀의 형상을 그려놓고 굿을 하였다. 다시 마을 예청도 대접해 달라고 하니, 소와 닭을 잡아 바치고 굿을 하였다.

③ 특징

으드렛당본풀이는 복잡한 전개양상을 보인다. 으드레한집은 처녀에서 뱀으로, 바둑돌로, 처녀와 뱀으로 거듭 모습을 바꾸어 간다. 전반적으로 조상신본풀이와 같은 전승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토산으드렛당은 여신이 홀로 당신으로 좌정하였기에 다른 여드렛당의 근원이 되기는 하였으나 신들의 관계를 계보화하는 양상은 찾기 어렵다.

④ 핵심어

토산리, 나주, 금성산, 뱀, 양이목사, 바둑돌, 강씨 형방, 오씨 형방, 가시리, 강씨아기, 온평본향당, 멩호부인, 하천리, 개로육서또, 용왕국, 장도, 만주에미, 초감제, 으드렛당, 여드렛당, 으드레한집

⑤ 원전 서지사항

으드렛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⑥ 관련 자료